

서구, 평생학습도시 모델로 자리매김



서구 관계자들이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 통과를 기념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교육부 3주기 평가인증 통과...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유지
대학 없는 도시 역발상...5분 학습터부터 주민 주도 선순환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평생학습 브랜드인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권 곳곳을 배움의 공간으로 바꾸며 평생학습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서구는 올해 교육부 주관 3주기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에 통과해 2028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한다.

서구는 2015년 평생학습도시로 처음 선정된 이후 주민의 학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3주기부터는 기존의 자격 유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생학습도시의 노력과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서구는 대학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역발상으로 풀어낸 '세큰대'를

통해 차별화된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해왔다. '서구 전체가 곧 하나의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특정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학습을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배움터로 만든 것이 핵심이다.

서구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우는 생활권 중심 학습 기반을 구축했다. 평생학습 본부를 비롯해 동캠퍼스 18개와 5분 거리 학습놀이터 50개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는 '특급 배움 배달강좌 런투유'를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배우고 가르치며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등 주민이 학습의

수혜자를 넘어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배움이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학습의 선순환도 구축했다. 마을 활동 전문지원가와 다문화 외국인 강사 등을 양성해 주민이 배운 지식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구는 2024년 2월 광주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 회원도시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도 평생학습 역량을 인정받았다.

서구는 앞으로 생활권 중심 학습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남구, '그림책 인문학 지도사 자격증' 취득 기회

하반기 '인생N모작 재시작 배움터' 운영
오는 19일부터 수강생 15명 선착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8일 "관내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예정자의 새로운 도전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그림책 인문학 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하반기 인생N모작 재시작 배움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 수강생들은 그림책을 매개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그림책의 이해와 활용 방법을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 및 지도 방법 등을 배우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그림책 인문학 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

모집은 오는 19일부터 남구 문화교육행사 앱을 통해서만 받는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주민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은 연령과 세대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그림책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살펴보고 인문학적 사고를 넓히게 된다. 또한 그림책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 방법 등을 익히며 전문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는 관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주민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움

과 도전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배움이 실제 활동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구청 교육체육과(☎ 607-243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그림책 감성 큐레이터 자격증 과정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